

수출통제·제재 해외동향

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지 언론 동향 ('22. 3. 14.)

■ 우크라 대통령, 러시아 전 세계에서 고립돼 (Ukrinform, 우크라이나)

-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(일) 대국민 영상담화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를 'DPR, LPR(도네츠크, 루한스크인민공화국, 자칭)'과 비슷한 "빈곤이 지배하고, 폭력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으로 만들었다"고 발언
- 그는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며,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지 않는 러시아는 그들의 인재와 능력, 부를 잃고 있다고 강조
- 한편, 러시아가 침략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어디에서라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, 그저 생존을 위한 어려운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힘.

원문출처: <https://www.ukrinform.ua/rubric-polytics/3428036-rosia-peretvoruetsa-na-izolovanu-vid-usogo-svitu-zonu-zelenskij.html>

■ 우크라, 조지아에 러시아의 對조지아 제재 일부 해제 결정과 무관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 (Interfax, 우크라이나)

-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의 조지아 무역 제재 일부 해제 조치가 "EU(유럽연합)의 對 러시아 제재 상황과 관련, 조지아 당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"라고 강조
- 이와 관련, 조지아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과 도시를 공격하는 러시아와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
 - 러시아 기업과 무역을 하고, 러시아에 추가 자본을 제공하는 행위는 우크라이나 내 유혈 전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 표명
- 한편, 우크라이나 외무부에 따르면,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략으로 조지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전쟁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, 조지아 당국은 이를 잊어버린 채 순간의 이익만 쫓고 있다고 발언

원문출처: <https://interfax.com.ua/news/political/808497.html>

■ 어떤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영업과 납품을 중단할 것인가? (Tass, 러시아)

- 돈바스 수호를 위한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작전과 관련, 서방의 對러 제재 강화로 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가 가속화되는 와중, 어떤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지 보도 (3.12.)
- (항공기계 및 자동차)
 - Boeing, Airbus: 러시아항공사에서 보유 중인 항공기에 대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, 유지보수 업무를 중단
 - Mercedes Benz, BMW, Volvo, MAN: 러시아 내 자사 차량 생산 및 러시아로 수출 중단 결정
 - Suzuki, Honda, Mazda: 차량 및 오토바이를 러시아 시장에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
 - 현대, Renault: 각각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부품수급 문제로 3월 5일까지 차량 생산을 중단한 바 있으며, Toyota도 같은 문제로 3월 4일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차량 생산을 중단
 - Continental: 러시아에서 생산과 영업 중단을 결정
- (전자(IT) 산업)
 - Apple: 러시아로 제품 수출, 온라인 판매, 일부 서비스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
 - 삼성: 러시아로 모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보도(블룸버그)되었으나, 한국측 연합뉴스는 회사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, 제품 공급 중단은 물류상 문제라고 보도했다고 밝힘.
 - TSMC: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예정. 반면, 러시아 기업인 Elbrus는 러시아에서 반도체 생산 지속
 - Intel: 러시아로 제품 공급 중단을 발표
 - Oracle: 러시아에서의 모든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중단
 - Siemens: 러시아 내 생산공장 운영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으나, 관련 운영 및 제품 공급 중단
 - Dell: 자사 제품 일시 판매 중단
- (물류산업)
 - KUEHNE+NAGEL: 의약품, 인도주의적 물품을 제외 운송 중단
 - * Maersk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으나, 일시적 조치라고 보도
 - DHL, CMA CGM, Fedex, UPS: 러시아항 상품과 서류 배송 중단 등

원문출처: <https://tass.ru/ekonomika/13951679>

끝.